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석에 있는 신민철군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85학번 입학과 4년 신민철이라는 학생입니다.
먼저 저에게 새 생명을 살게 해주신 조영선총장과 학교 당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산업대학장님을 비롯한 전교수님, 학우들에게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온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만성신부전증이라는 병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이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병은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치료방법은 투석과 이식수술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투석은 치료후 이들을 살기 위

해 하루종일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는 고통과 매달 20~30만원씩 드는 엄청난 치료비의 부담과 배설조차 되지 않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항상 고통과 병원에 고생을 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 하루 죽어간다는 불안감과 주위의 무관심은 저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장기이식수술이었습니다.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선 우선 신장재증자와 천만원을 넘는 수술비가 필요했지만 저는 이 두가지가 모두 없어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양: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그러나 저에게도 주위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박진택 목사님의 사랑의 장기증본부와 연결되어 신장을 제공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연을 전해들은 학우들과 교수님, 학장님께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저의 상황을

은 이해심으로 경희의 한가족으로서 치료함에 서슴치 않은 경희의료원은 너무나도 고맙게 수술비용등 치료에 적극 나서주셔서 저는 매일마다 경희인으로서 경희의 한가족임을 너무나도 가슴 기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수술이후 완쾌되어 다시금 경희의 배움터에서 저를 도와주신 모든분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간 1년의 일이 모두 꿈만 같고 이 일을 있게 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 민 철
(임학4)

“간략하고 정연한 집회를 하자”

어느덧 91년도의 한학기가 거의 다 지나갔다.
한 학우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음에 반해 아직도 변하지 않고 관성적인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대내외 집회다.
형식적 순서에 맞춰 진행되는 집회는 극히 따분하고 지루하다. 특히 91학번들은 지루함을 많이 느낀다. 집회에 참여하는 학우들은 그 집회의 중요성에 대해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물론, 수

개인의 마구잡이식 매도는 없어야 —‘김지하론’ 반박논문에 대한 비판

지난 13일자 대학주보에 실린 선배님의 의견에 넘친 글은 잘 읽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뜻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수급이 가진 논리 전개 과정에서의 지나친 비약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지하씨가 진정한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왜 그러한 글을 썼으며 누구를 위하여 붓을 든것입니까?

그는 <생명은 신성하다>고 하였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생명은 출발점이고 도착점)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래서 <정권보다 큰 생명>일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모든 참된 운동의 출발이자 방향이며 민중의 생명 보수와 그 해방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까. 선배님의 말처럼 그의 생명사상은 현실을 외면한 채 생명 자체만을 논하려는 저 세기말적 은둔사상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고려타분한 도파사상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실존 추

구도 아닙니다. 뼈를 쥐는 기다림과 견뎌낸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끈질긴 생명력과 삶의 존중 그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절자의 추악한 언행이고 이것이 용유병적 환상이며 이것이 민중을 대한 반역을 자행하는 행위입니까? 그는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향을 걸어치우라는 그의 충고를 선배님은 다시 오독하여 전대일 일사와 일제 치하의 독립투사들, 광주 민중항쟁의 민중들을 예로 들면서 당신은 미치지 않았으면 정신병자라고 반박하였습니까. 정말 그는 미친 것입니까? 그가 젊은 벗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은, 열렬하게 관철시키고 싶었던 것은 진정한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투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끈질기고 슬기로운 저항을 계속 해나가라, 죽음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끝까지 살아서

끝일 뿐이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결의인 것입니다.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주장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논쟁은 한 개인이나 작품에 대한 마구잡이식 비난이나 매도의 도구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가운데서 싹트는 진리 탐구와 학문 연구의 열린 마당인 것입니다.

최 창 근
(국문1)

일체감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 —수원캠퍼스 체육부소개

고학골과 서천골 우리는 두개의 경희이다. 서울과 수원 지명도 틀리지만 또한 상당히 멀다. 자연 서로에게 무관심하기 마련이며, 서로의 소식을 접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고 소식도 접하기 힘든 두캠퍼스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금방 가까워질 수는 없는 두 체제이지만 같이 뛰며 땀 흘릴 수 있는 스포츠에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까워 질 수 있다. 탁구단 일팀을 시발로 청소년 축구 대회에 단일팀을 출전시켰다. 서울 캠퍼스에는 5개의 운동부가 있고 수원캠퍼스에는 20개의 운동부서가 있다. 각각의 운동부원들은 자신들의 명예도 있지만 학교의 명예와 ‘경희인’이라는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수원캠퍼스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부를 알아보면

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희 핸드볼은 거의 전수가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88년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구기종목 은메달 획득의 주역으로 활약하였으며 91년도 대학연맹 우승 및 5월 청구에서 열린 중립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였다.

하 키
처음에는 남자로 창단되었으나 70년대 중반 해체되었다. 1983년도 재창단되어 19명의 선수가 있다. 이학현, 조범연, 이기호 선수들이 북경 아시안게임에 선발되어 출전하는 등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91년도 전국 춘계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였다.

배 구
1961년 창단되었다가 68년 해체되었다. 23년만인 올해 재창단된 배구부는 박만복, 안상호, 이창호 감독등 유명선수들을 배출해낸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핸드볼
1958년 창단 되었으나 76년 해체되었다. 1982년 재창단 되어 16

천 병 옥
(체육4)

수원(국문·90) ▲김윤희(생물·89) ▲박원정(화학·88) ▲정혜선(화학·87) ▲조지영(생물·89) ▲이격희(법학·87) ▲이승재(법학·90) ▲현광현(정·90) ▲이명근(무역·88) ▲배진환(경제·88) ▲손민상(무역·90) ▲정병선(경영·89) ▲이형주(영·88) ▲허인숙

90) ▲김동철(태권도·90) ▲조연진(임학·90) ▲곽원우(환경·90) ▲조병희(물리·91) ▲오연기(태권도·90) ▲방은주(산·90) ▲장윤정(요·90) ▲조지형(기공·90) ▲신민선(일본·89) ▲박진배(영문·89) ▲양준현(화공·89) ▲남경현(경영·89) ▲이기훈(체육·89) ▲윤영진(건축·89) ▲임원구(임학·89) ▲강규원(토목·89) ▲김혁희(체육·88) ▲김기덕(토목·88)

【서울캠퍼스】 ▲김홍석(철학·4) = 김정석 지갑, 20일 본관잔디밭 ▲윤강원(생물·87) = 김정석 화인(책·노트), 16일 오후1시 마장가담주변. ▲제이크 엘리(영어·89) = 소형컴퓨터전자계산기(월별일정표·전화번호·주소·입력), 24일 문리대 3층에서. 연락처: 영자신문사(511~8556)

【수원캠퍼스】 ▲학생증 = ▲김선옥(영문·90) ▲최영진(경영·89) ▲김동환(의예·86) ▲이효정(의예·85) ▲이남훈(한의예·87) ▲정원구(성·90) ▲권윤희(기·89) ▲김인환(체육·89) ▲자동차 운전 면허증 = 송영호

【서울캠퍼스】 ▲전남 장흥향우회 = 오는 28일 오후 6시 불새대방 ▲청주 윤호고 = 오는 29일 오후 5시 중앙도서관 앞 ▲관악고 = 오는 27일 오후 5시, 한의대사자상 ▲전남고 = 오는 27일 오후 5시30분 녹원 ▲울산고 = 오는 31일 오후 6

시 동해안점 ▲살레시안 = 오는 28일 오후 6시 수화장 ▲부산진·진영고 = 오는 27일 오후 5시 골목길 (주노프) ▲여수향우회 = 오는 27일 오후 5시 정경대 앞 벤치.

【수원캠퍼스】 ▲대성·선일고 = 오는 28일 오후 5시 공대휴게실 ▲제철고 = 오는 29일 오후 4시 2호관 민주광장 ▲상일·삼일고 = 오는 27일 오후 5시반 학생회관 휴게실 ▲관악고 = 오는 31일 오후 5시반 공대휴게실 ▲여의도고 = 오는 6월1일 오후 4시 여의도호프 ▲동성고 = 오는 30일 오후 6시 회기캠퍼스에 녹원 ▲중정고 = 오는 27일 오후 3시반 공대휴게실 ▲남강·미림고 = 오는 28일 오후 5시 1호관 잔디밭 ▲신목고 = 오는 6월1일 오후 1시 목동 뒤편 호프

【서울캠퍼스】 ▲학생증 = ▲이효정(의예·85) ▲이남훈(한의예·87) ▲정원구(성·90) ▲권윤희(기·89) ▲김인환(체육·89) ▲자동차 운전 면허증 = 송영호

【수원캠퍼스】 ▲학생증 = ▲김선옥(영문·90) ▲최영진(경영·89) ▲김동환(의예·86) ▲이효정(의예·85) ▲이남훈(한의예·87) ▲정원구(성·90) ▲권윤희(기·89) ▲김인환(체육·89) ▲자동차 운전 면허증 = 송영호

【서울캠퍼스】 ▲전남 장흥향우회 = 오는 28일 오후 6시 불새대방 ▲청주 윤호고 = 오는 29일 오후 5시 중앙도서관 앞 ▲관악고 = 오는 27일 오후 5시, 한의대사자상 ▲전남고 = 오는 27일 오후 5시30분 녹원 ▲울산고 = 오는 31일 오후 6

【수원캠퍼스】 ▲대성·선일고 = 오는 28일 오후 5시 공대휴게실 ▲제철고 = 오는 29일 오후 4시 2호관 민주광장 ▲상일·삼일고 = 오는 27일 오후 5시반 학생회관 휴게실 ▲관악고 = 오는 31일 오후 5시반 공대휴게실 ▲여의도고 = 오는 6월1일 오후 4시 여의도호프 ▲동성고 = 오는 30일 오후 6시 회기캠퍼스에 녹원 ▲중정고 = 오는 27일 오후 3시반 공대휴게실 ▲남강·미림고 = 오는 28일 오후 5시 1호관 잔디밭 ▲신목고 = 오는 6월1일 오후 1시 목동 뒤편 호프

【서울캠퍼스】 ▲전남 장흥향우회 = 오는 28일 오후 6시 불새대방 ▲청주 윤호고 = 오는 29일 오후 5시 중앙도서관 앞 ▲관악고 = 오는 27일 오후 5시, 한의대사자상 ▲전남고 = 오는 27일 오후 5시30분 녹원 ▲울산고 = 오는 31일 오후 6

【수원캠퍼스】 ▲대성·선일고 = 오는 28일 오후 5시 공대휴게실 ▲제철고 = 오는 29일 오후 4시 2호관 민주광장 ▲상일·삼일고 = 오는 27일 오후 5시반 학생회관 휴게실 ▲관악고 = 오는 31일 오후 5시반 공대휴게실 ▲여의도고 = 오는 6월1일 오후 4시 여의도호프 ▲동성고 = 오는 30일 오후 6시 회기캠퍼스에 녹원 ▲중정고 = 오는 27일 오후 3시반 공대휴게실 ▲남강·미림고 = 오는 28일 오후 5시 1호관 잔디밭 ▲신목고 = 오는 6월1일 오후 1시 목동 뒤편 호프

대동개념 속 사랑의 끈 역할



5월 주제
‘축 제’

밝은 햇살과 함께 화사하기만 한 오월. 오월은 장미가 꽃으로 피어나는 달이요, 장미빛 향기가 사랑으로 변신하는 달이다.

그러하여 어린이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 스승님의 마음까지 그 속에 함뼉 사랑으로 적셔 주면서 끝내는 젊은이의 마음까지 들뜨게 한다.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축 제’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봄이든 어김없이 제 색을 뽐내는 아름다운 꽃들과 수목들의 푸르름 속에서 문득 나의 발자국은 어느때쯤 와 있는가 멈춰서 본다.

도서관 앞 숲길의 바위 위에 앉아 친구들과 나누었던 그 많은 대화들이 추억의 실타래 속에 서서히 풀려나올 때, 어쩔 수 없이 세월 속에 묻혀 사는 우리네 모습이, 일년에 한 두 번도 만나보기 힘든 우리네 삶의 표정이 너무도 허탈하게 느껴진다.

온 세상이 내 것인양 한껏 부풀 꿈속에 기지개를 켜보았던 그 싱그러웠던 옛 시절.

그 시절도 축제는 있었다. 황태자가 첫 사랑을 구가했던 하이델베르크의 낭만 못지않게 통기타를 둘러싼 젊은 대학인들의 열정은 허물한 ‘동춘 초가집’의 막걸리를 동나게 했고 목이 터져라 응원가를 불러낸 단체 대항 체육대회에서 우승이라도 하고 나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전 운동



이 혜 정
(한대의교수 한의학)

“콘크리트 벽속에서 자라는 극도의
이기심을 버리고 이 젊음을 위하여
축배를 들면서 축제의 문을 열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폐쇄문화의 산물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모습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면서 새로운 양상의 대학문화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던 것이다.
역사의 흐름과 변천 속에서 이념의 표상도 분명 다른 법이다.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

교와 학생들 간의 믿음도, 자랑스런 ‘경희인’이라는 대동개념 속에 사랑의 끈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콘크리트 벽들에서 자라는 극도의 이기심을 우리 모두 버리고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젊음, 이 소중한 순간을 위하여 자, 축배를 들면서 또 한번 축제의 문을 열자.

올해 8월 8일, 우리 설악에서 세계 청소년들의 힘찬 축제 17회 세계잼버리가 열립니다.



120개국 2만여 청소년들이 모이는 지구촌 보이스카우트들의 아영축제

17회 세계잼버리가 올해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우리나라 설악에서 열립니다. 지구촌의 청소년들이 국경, 언어,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자연속에서의 아영과 과장활동을 통해 폭넓은 우정을 나누는 축제—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번 17회 세계잼버리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헝가리, 체코, 소련등 동구권이 대거 참여하여 동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념의 장벽을 넘어 하나되는 의미깊은 행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년들이 이루어 갑니다. 다가올 21세기의 ‘세계는 하나’

17회 세계잼버리의 테마는 ‘세계는 하나’—10대에 세계와 만나 폭넓은 우정을 나누고 자연속에서 젊음의 힘찬 패기를 길러온 지구촌의 보이스카우트들은 21세기의 세계 곳곳에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큰 몫을 하는 주인공으로 자랄 것입니다.
21세기의 하나된 세계를 약속하는 자리—17회 세계잼버리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후원 '91 세계잼버리 공인은행

쌍용 조흥은행